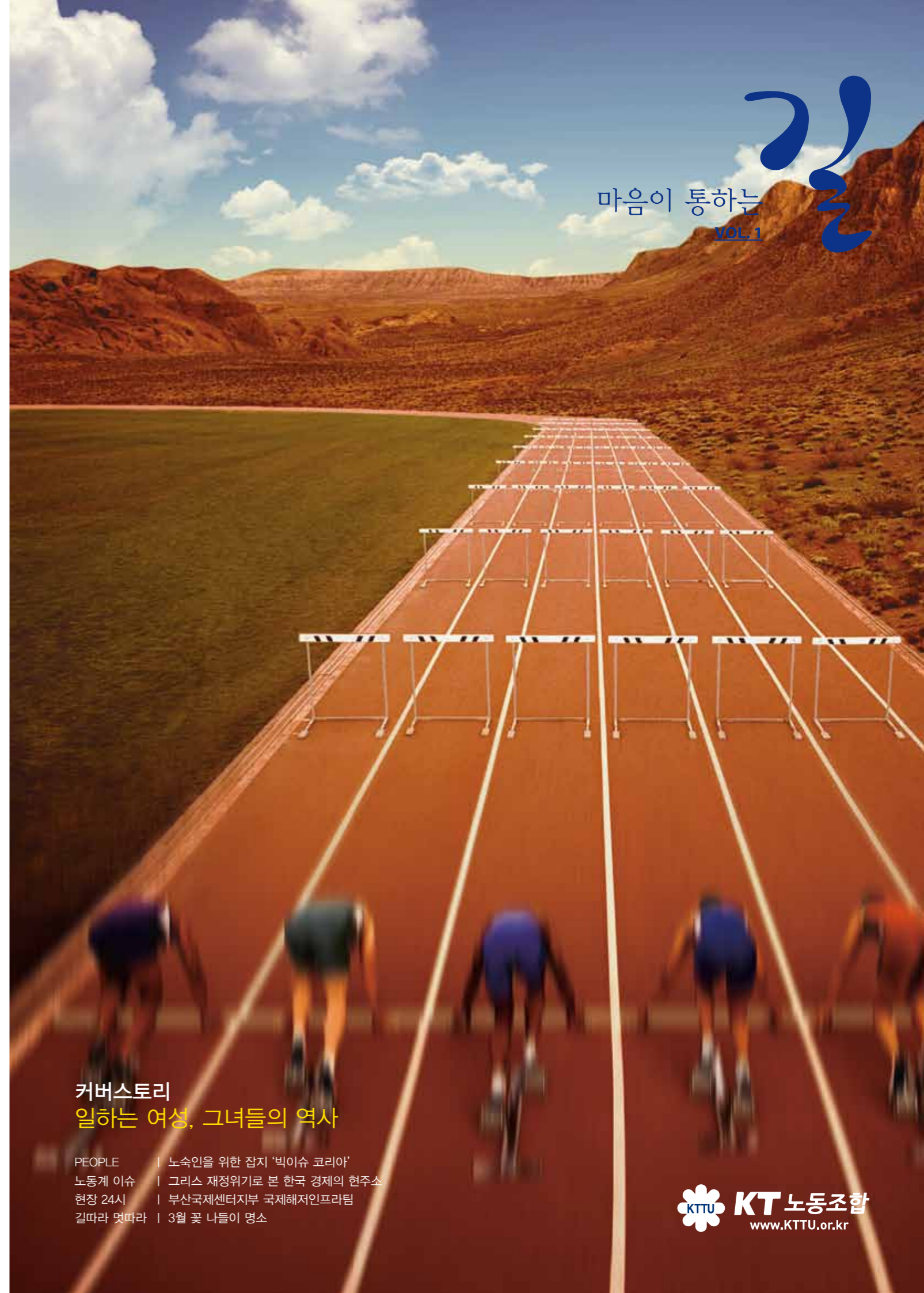


마음이 통하는  
VOL.1

# 길



마음이 통하는  
VOL.1

# 길

커버스토리  
일하는 여성, 그녀들의 역사

PEOPLE | 노숙인을 위한 잡지 '빅이슈 코리아'  
 노동계 이슈 | 그리스 재정위기로 본 한국 경제의 현주소  
 현장 24시 | 부산국제센터지부 국제해저인프라팀  
 길따라 멋따라 | 3월 꽃 나들이 명소

##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능력은 네 살 때 형성됩니다.  
그 무렵에 나와 타인을 구분하기 시작하죠.  
친구를 알게 되는 것도 그때부터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부와 명예, 권력을 얻을수록  
그 능력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일수록  
그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위치에 오르기 위해  
너무 열심히 달려온 탓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말을 겁니다.  
힘들거나 괴로울 때, 일이 안 풀리고 복잡할 때,

화가 나고 답답할 때, 저절로 혼잣말을 하게 되죠.  
내 안의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절로 타인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타인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 즉 소통이 가능해 집니다.

타인을 설득하고 마음을 얻는 것도 가능해 지죠.  
자기의 내면과 대화하기!

소통의 첫 단계입니다.

## Contents Vol.1

<b>04</b>	<b>정윤모 위원장 메시지</b>	<b>24</b>	<b>현장 24시</b> - 부산국제센터지부 국제해저인프라팀 김연태 조합원
<b>06</b>	<b>전국대의원대회</b>	<b>28</b>	<b>전문가 칼럼</b> - KT·삼성전자 스마트TV 분쟁
<b>10</b>	<b>KTTU News</b>	<b>30</b>	<b>알아봅시다</b> - 산재신청 체크리스트
<b>14</b>	<b>커버스토리</b> - 일하는 여성, 그녀들의 역사	<b>32</b>	<b>길따라 멋따라</b> - 3월 꽃 나들이 명소
<b>18</b>	<b>PEOPLE</b> - 노숙인을 위한 잡지 '빅이슈 코리아'	<b>34</b>	<b>북멘토</b>
<b>22</b>	<b>노동계 이슈</b> - 그리스 재정 위기로 본 한국 경제의 현주소		

발행인 | KT노동조합 위원장 정윤모 편집인 | KT노동조합 정책실장 차원규 발행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KT노동조합 031-727-2835 발행일 | 2012년 4월 5일(격월간)  
제작 및 디자인 | KT문화재단 02-3414-2053 인쇄 | 삼립인쇄 02-469-7111



# 변화와 소통으로 ‘강한 노조’, ‘희망의 KT’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위원장 이·취임식을 시작으로 KT노동조합 11대 집행부의 공식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1대 집행부는 앞으로 3년간 KT 2만 5천 조합원들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변화하고 소통하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10대 집행부가 남긴 호스트 운동 등 좋은 선례를 유지·발전시켜 KT노동조합의 위상 강화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노동·통신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강한 노동조합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KT노동조합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한 11대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의 소회를 들어보았다.

## 존경하는 2만 5천 조합원 여러분!

2012년 11대 집행부가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먼저 조합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보내주신 성원을 마음 깊숙이 새겨 조합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 전문 역량을 갖춘 집행부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조직 안정화와 고용안정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뛰겠습니다.

노동조합 사업은 ‘변화하고 소통하는 강한 노동조합 건설’이라는 11대 집행부의 기치 아래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할 것입니다. 11대 집행부의 큰 사업방향은 ▲정년 연장 및 고용안정 추진 ▲임금·복지 개선 ▲현장불만 해소 ▲근무만족도 제고 ▲행복한 직장 실현 ▲조합채신 단행 등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는 △열린 노동조합 △찾아가는 노동조합 △건강하고 행복한 노동조합 △연대하는 노동조합 △강한 노동조합 건설입니다.

현재 KT노동조합은 대화와 교섭을 통한 ‘상생’의 전략을 수립하면서, 노동운동 전반에 새로운 변화와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값진 노력으로 KT노동조합이 국내 최대 통신노동조합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 변화와 소통으로 11대 노동조합이 그 희망의 실체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변화와 소통, 강한 노동조합 건설을 기조로 과거의 답습이 아닌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선진화된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조합 간부는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합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에 수직이 아닌 수평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현장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조합원들과 함

KT trade union

4  
5

께 동고동락하겠습니다. 또한 구태에 빠져 자신의 영달을 위해 활동하는 조합간부들이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세력은 차후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합간부의 도덕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결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하고 책임지는 풍토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합원 여러분!

지금 국내 통신 시장은 가입자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장기간의 외형 성장이 정체된 상황입니다. 새로운 활로를 통한 수익모델과 성장동력을 찾지 않으면 도태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과감한 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KT노동조합도 이를 분명히 인식하여 변화에 발맞추고, 변화를 먼저 읽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준비하는 자세로 글로벌 기업에 맞는 노동조합의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모두 함께 일치단결하여 조직 분위기를 활기차게 쇄신하고 더 큰 희망과 도약을 만들어 갑시다.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변화와 소통을 토대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더욱더 친근하게 조합원에게 다가서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고 내부소통이 없는 조직은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조합의 문을 과감히 열어젖힐 것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의견을 존중하고, 끊임없는 순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합간부와 조합원 간의 평등한 의견 개진을 위한 토론문화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드시 변화와 소통을 이뤄내겠습니다.

희망의 노동조합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올 한 해 조합원 여러분 가정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 위원장 정윤모

정윤모



# 열린 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변화와 소통

## 2012년 KT노동조합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2012년 KT노동조합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가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지리산 수련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 명의 조합간부와 대의원들이 2012년 사업계획 등 4개 안건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키며, 노동조합의 보다 강화된 기강을 위해 혁신과 소통을 다짐하는 장이 됐다.

KT trade union

6  
7

2012년 전국대의원대회를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조합간부와 대의원들은 방을 배정받은 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입소식과 함께 2박 3일 일정에 돌입했다. 황성관 사무총장은 입소식 환영사를 통해 “지리산의 정기가 가득한 곳에서 전국의 대의원과 조합간부들을 한 자리에 모시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다”고 인사하고, “노동환경을 위시하여 정치, 경제 등 2012년의 전반적인 상황이 녹록하지 않으므로, 조합간부에게 주어진 사명에 더욱 치열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어 “이번 전국대의원대회는 KT의 주인이 조합원이며,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 조직을 공고히 하는 화합과 단결의 장이 될 것을 바란다”며 환영사를 마무리했다. 30분간의 입소식 후에는 다음날 본 대회를 앞두고 강연과 간담회 등으로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이 곧바로 이어졌다. 먼저 ‘노동조합 운동과 간부/대의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부소장의 강연이 진행됐는데, 강연은 ‘노동조합 운동의 진단’, ‘노동운동의 미래전략’, ‘노동의 과제와 간부역할’ 등의 내용으로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강연이 끝난 후 저녁식사와 휴식시간을 가진 조합간부와 대의원들은 이어 7시 30분부터 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정윤모 위





원장은 변화와 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불신의 벽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불필요한 휴일 근무와 함께 지역단별 프로모션을 근절하는 등의 현장불만 사항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위원장은 특히 종사원들의 화합을 위해 회사 측에 '업무실수로 인한 징계자'의 대사면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합원 위한 노동조합으로서의 기강 재정립**

다음날 오전 10시 30분,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대강당에서 노동조합 11대 집행부의 첫 전국대의원대회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 자리에는 정윤모 위원장, 황성관 사무총장, 조합간부 및 대의원은 물론 각계각층의 내외빈 등 총 500여명이 참석했고, 초대 위원장인 최상용 위원장과 전직 위원장들, KT그룹사 위원장, 그리고 이석채 회장 및 경영진 등이 함께한 가운데 개회가 선언됐다.

정윤모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내적으로 조합원과 한층 가까워지고 외적으로는 KT노동조합의 위상에 걸 맞는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한 뒤 "노동조합의 올해 사업핵심 중 하나는 조직을 진단하고 혁신하며 강화하는 것"이라며, "내부의 결속을 견고하게 다질 것"을 강조했다. 이어 "파벌과 갈등을 조장하는 반조직 행위자는 과감히 엄단하겠지만, 업무상 단순 실수로 인한 징계자는 대사면을 받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이석채 회장께 강력히 요구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사면은 KT그룹 전체에 시행하는 것으로써, 굳건한 조직을 위한 화합의 계기가 됨은 물론, 조합원의 동기부여와 긍지를 고무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장불만 해소를 선행하는 등 사측에 종사원의 가치를



존중하는 경영을 꾸준히 요구 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채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정위원장께서 요구하신 대사면 제안에 대해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한 뒤, "KT가 가족과 후배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회사로 우뚝 설 수 있는 길이라면, 경영진과 노동조합이라는 간극을 넘어 정윤모 위원장과 동지가 되어 함께 동참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부 행사에서는 우수지부, 조합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는데 우수지부에는 강북지방본부 경기북부NSC 등 총 15개 지부가 선정됐다. 이어 우수 조합원으로는 강남지방본부 이천 김학능 등 총 18명의 조합원이 표창패를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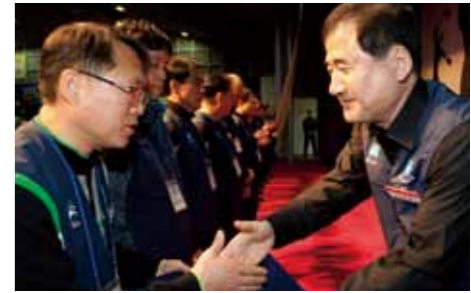
**2012년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통과**

2부 행사에서는 정윤모 위원장을 의장으로 엄숙하고도 활력 넘치는 분위기에 2012년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등 총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11년도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2012년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은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압도적 지지로 가결됐다. 이어진 기타 토의 시간에는 정책실의 홈고객 부문 플라자 위탁에 관한 사항, 립스폰 대상자 확대 관련 보고가 이어졌다. 립스폰의 경우 삼성 갤럭시 노트 1,700대를 4월에 지급할 예정이고, 블루투스차량용 거치대는 2,700대를 5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사업을 실행할 때는 언제나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고 충분히 상의 하겠다"며 "11대 집행부는 무엇보다 예산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생명으로 알고 신중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대의원들은 끝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받는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면서 2012년도 KT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수상내역은 아래와 같다.



**우수지부(총 15개 지부)**

- ▲강북지방본부 경기북부NSC (지부장 유지영) ▲강북지방본부 서울북부법인사업단(지부장 김준현) ▲강남지방본부 경기남부법인사업단 (지부장 임병태) ▲서부지방본부 김포(지부장 김철호) ▲부산지방본부 중부산 (지부장 이명현) ▲부산지방본부 동부산 (지부장 이기학) ▲대구지방본부 대구NSC (지부장 이종학) ▲본사지방본부 네트워크기술지원본부 (지부장 노일철) ▲전남지방본부 목포NSC (지부장 박철오) ▲전북지방본부 부안 (지부장 김덕경) ▲충남지방본부 보령 (지부장 김남경) ▲충남지방본부 유성 (지부장 이광엽) ▲충북지방본부 진천(지부장 장민철) ▲강원지방본부 원주NSC (지부장 박재호) ▲제주지방본부 신제주 (지부장 최태중)

**우수 조합원(총 18명)**

- ▲강북지방본부 남양주 황용진 ▲강남지방본부 이천 김학능 ▲강남지방본부 영동 홍기열 ▲서부지방본부 인천마케팅단 김용철 ▲부산지방본부 울산 이민수 ▲대구지방본부 서대구 김현철 ▲대구지방본부 경북법인사업단 김승환 ▲본사지방본부 자산센터 방국균 ▲본사지방본부 엔지니어링단 김상용 ▲전남지방본부 화순 정규진 ▲전남지방본부 순천 김중원 ▲전북지방본부 북전주 김광훈 ▲충남지방본부 논산 장대연 ▲충북지방본부 청주 신준식 ▲충북지방본부 충북법인사업단 이원엽 ▲강원지방본부 양양 김창수 ▲강원지방본부 인제 이종하 ▲제주지방본부 네크워크 고재일

# 104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여성의 힘으로 '양성평등 사회와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

KT노동조합은 3월 9일(금)~ 10일(토) 1박 2일간 중앙본부에서 KT노동조합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전국여성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중앙본부 박호근 여성국장을 중심으로 전국지방본부 여성국장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1박 2일간 '여성리더십과 변화관리'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10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여성단체연합의 104주년 기념행사에 합류했다.

KT노동조합의 최장복 조직실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진보통합당의 대표가 모두 여성인 것처럼, KT는 신입사원뿐 아니라 여성 임원의 비율도 점점 높아졌다"라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만큼 여성 조합간부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격려했다.

이어 박여성국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104주년을 맞은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친목을 도모하고 교육을 통해 여성 조합원들의 지위와 권리를 지키고자 모였다"고 밝히고, "KT가 여성 조합원들이 활짝 웃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희망의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자기소개 및 간단한 친교프로그램 후 본격적인 교육에 돌입했다.

이튿날, 전국지방본부 여성국장들은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한국여성대회에 참가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 '3.8여성 선언'과 축하공연이 펼쳐진 가운데 참가자들은 "양성평등 사회와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하자!"고 소리 높였으며,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의, 평등, 평화,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고, 여성 노동자가 진정 원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선거에서 적극적인 한 표를 행사할 것을 호소했다.



'3·8 세계여성의날'은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노동자들이 쉼의 날을 기념해 1975년 유엔에 의해 공식 지정된 날이다.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던 3월 8일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KT노동조합 전국여성국장 회의

KT trade union  
10  
11

# KTTU hot news

## KT노동조합 2012년 사업계획(안) 확정

정운모 위원장, 소통 위한 첫걸음으로 불신의 벽 무너뜨릴 것  
"유명무실", 불필요한 휴일근무 근절 천명

노동조합은 3월 7일(수) 오후 1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2012년도 제3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노동조합 2012년 사업계획(안) 수립을 위한 것으로,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11대 집행부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업방향을 기초별로 분류하여 최종 확정했다.

정운모 위원장은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며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이 사업이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11대 집행부 기조인 '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해묵은 현장불만 해소를 통해 불신의 벽부터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전제하고, "무엇보다 과당경쟁으로 불거진 능률없는 눈치보기식 휴일근무를 하루빨리 근절하고, 이에 수반되는 지역단별 불필요한 프로모션도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미 회사와 노동조합 12개 지방본부위원장의 협조를 받아놓은 상태"라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 노동조합, KT 제30기 주주총회 참석

이석채 회장 재선임... 향후 3년간 최소 주당 2천원씩 배당금 지급

KT노동조합 정책실은 3월 16일(목) 오전 10시 우면동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KT 제30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요안건 심의·의결과정을 지켜봤다.

이번 정기주총에서는 ▲이석채 회장 재선임 ▲재무제표 승인 ▲정관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경영계약서 승인 등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한편,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사내이사에 △이상훈(Global & Enterprise부문장) △표현명(개인고객부문장) 이사가, 사외이사로는 △김응한(미시간대 경영학 석좌교수) △이춘호(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 이사가 재선임됐으며, △성극제(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차상균(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사가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서는 △김응한 이사가 재선임됐다. 특히 배당금은 주당 2천원으로 최종 확정됐고, 오는 4월 13일(금)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회사는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주당 2천원의 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노동조합, 연중 불필요한 휴일근무 불시점검

▶ 적발된 비정상 복무운용기관 단장 및 지사장 경고 조치

노동조합은 지난 2월부터 주말마다 현장을 불시에 점검, 불필요한 휴일근무 사례를 취합하여 회사에 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회사는 3월 19일(월) 문서(경지2012-147)를 통해, 적발된 비정상 복무운용기관의 단장 및 지사장에 서면경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11대 집행부 공약중 하나인 '불필요한 휴일근무 근절'과 관련, 정윤모 위원장은 1월 2일, 첫 사무식에서부터 "불필요한 휴일근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11대 집행부 기조인 소통을 위해서는 해묵은 현장불만해소를 통해 불신의 벽부터 없애는 일이 시급하다"고 전제하고, "그 시작은 능률없는 눈치보기식 휴일근무 근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 7일, 2012년도 노동조합 사업계획수립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도 "이미 회사와 12개 지방본부의 협조를 받아놓은 상태"라며, "이번 기회에 지역단별 불필요한 프로모션까지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정책실을 중심으로 연중계획을 세워 수도권을 시작으로 강원, 부산, 충남 등 매 주말 현장을 불시점검하였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 해당 단장 징계 등 강도높은 후속조치를 회사에 요구해 왔다.

노사는 이번 경고조치를 시작으로, 유사사례 적발시 더욱 강력히 제재키로 합의완료했다.

※ 기타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자료실 - 「문서/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T trade union

12  
13



## 임직원자녀 무료 온라인학습 홈페이지(중등) 통합 변경

▶ 중등교육과정은 2012년 3월11일부터 올레홈스터디로 사이트 통합

노동조합과 회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임직원자녀 대상 무료인터넷교육서비스에 대한 중등교육 과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중등교육과정 限 사이트 통합(고등과정은 기존과 변동없음)

- 기존 7WISE 홈스터디와 에듀클럽을 2012년 3월부터 olleh 홈스터디 사이트로 통합 변경
- 7wisehome.kr(기존 중등과정) → <http://www.ollehhomestudy.co.kr/> 통합운영
- educlub.com(신규 중등과정) → <http://www.ollehhomestudy.co.kr/> 통합운영

■ 교재 : 연10권(학기별 국/영/수/사/과)

- 올레홈스터디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에 한하여 배송

■ 이용자 ID

- 에듀클럽이나 7WISE에 가입하여 사용중인 자녀는 올레홈스터디에서 기존 ID 그대로 사용 가능
- 로그인 시 기존 사용하던 ID의 비밀번호는 아래 콜센터로 문의

■ 서비스 오픈 : 2012년 3월 11일

■ 문의 : 1577-7111(콜센터)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기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 IT폰(림스폰) 대개체 대상 및 소모품 확대 공급

노동조합은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IT폰 대개체 기준을 회사측과 재협약하여 2012년에 IT폰 대개체 및 블루투스 이어폰과 차량용 거치대를 아래와 같이 확대 공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IT폰

- 기종 | SHV-E160K(갤럭시 노트)
- 시기 | 2012년 4월 중
- 수량 | 1,700여 개
- 대상 | 주 업무를 IT폰을 활용해 수행하는 직원
- 기준 | 공급기준 3년 이상

■ 블루투스 이어폰과 차량용 거치대

- 시기 | 2012년 5월 중
- 수량 | 2,700여 개
- 대상 | 홈 고객부문의 개통, A/S 직원
- 기준 | 블루투스 이어폰 및 차량용 거치대 : 1회성 지급

■ 문의 : 전형집 정책1국장(031-727-2835)

※ 향후 추가 물량 및 차량용 충전기는 지사 자체 처리



## 노사공동 KT그룹 특별대사면 추진

▶ 정윤모 위원장 전국대의원대회 통해 공식요청... 이석채 회장 적극수용 의사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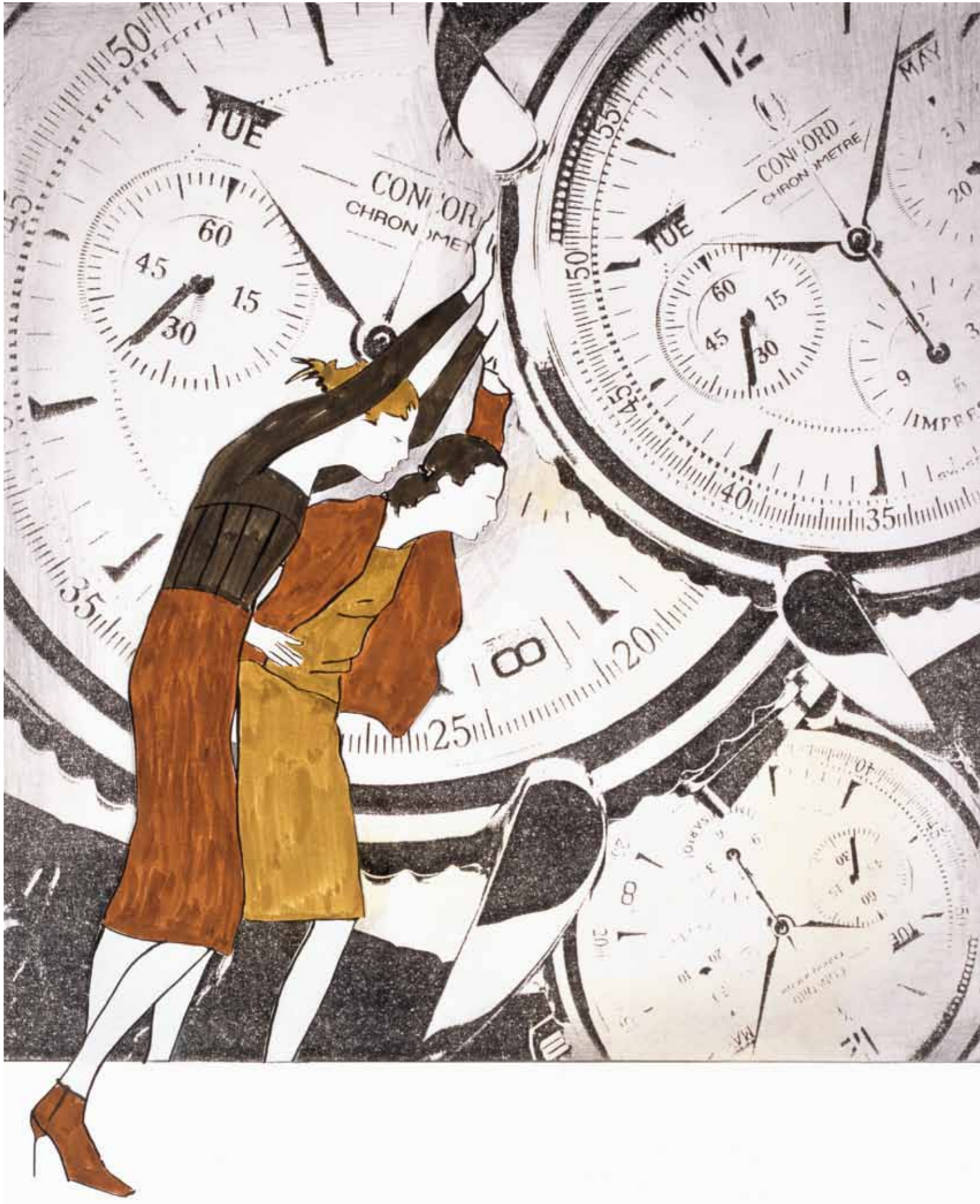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은 2012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이석채 회장에게 징계자 특별대사면을 요구, 3월 23일(금) 노사는 올해의 KT인 수상식을 통해 이를 공문화했다. 지난 22일(목)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윤모 위원장은 "금품수수나 파벌과 갈등을 조장하는 반조직 행위자는 과감히 엄단하겠지만, 업무상 단순실수로 인한 징계자는 대사면을 받도록 참석하신 이석채 회장께 제안한다"고 발표했고, 이어 이석채 회장은 축사에서 "정 위원장께서 요구하신 대사면을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T노사는 빠른 시일 안에 그룹 임직원 중 업무상 단순실수로 인한 징계자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조치를 내리기로 했으며, 대상자는 KT에만도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노동조합은 앞으로도 현장의 불만을 하나씩 해소해 가는 노력을 통해 '변화하고 소통하는 강한 노동조합 건설'을 몸소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그 첫 번째로 이미 불필요한 휴일근무와 지역단별 프로모션을 근절하도록 회사와 협의했으며, 노동조합 차원에서 현장 불시점검을 통해 미 이행 단장 징계 등을 요청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림스폰 블루투스 등에 대한 수해폭을 넓힐 것을 요구,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KTTU hot news



## ‘걸’들과 ‘여공’을 지나… 근 현대가 기억하는 ‘일하는 여성’, 그녀들의 역사

### 일제 식민지, ‘걸’들의 등장

“어느 편이 기계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바빠 일을 해서 마치 인조인간 같은 느낌을 줄 만큼 바쁘다. 점심 먹는 것과 그 밖의 일도 모두 10분 안에 치러야 한다.”

1930년대, ‘헬로걸’이라고 불렸던 한 여성 전화교환수의 당시 인터뷰 중 일부다. 버젓이 전화교환수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근대를 맞은 식민지 조선에 온갖 ‘걸’이 유행하면서 그들은 ‘헬로걸’이라고 불렸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며 당시 한반도에는 다양한 여성 직종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특히 서비스직 등에 종사하던 여성들은 일본식으로 직업 이름에 ‘걸’을 붙였다. 백화점 점원은 ‘데파트걸’, 버스 차장은 ‘빠스걸’, 극장 매표원은 ‘티켓걸’이었다. 주유소에서 일하는 여성은 ‘가솔린걸’이라고 불렸다. 이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고 근대적 일을 하는 직업여성 가운데 한 부류였다.

### 열악한 노동조건인 ‘걸’들

그들은 걸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노동조건은 그렇지 못했다. 하루에 수많은 손님을 대하며 물건을 싸주는 ‘데파트걸’은 다리 한번 편하게 쉬어보지 못하고 열네 시간이 넘게 줄곧 서있다가 네온사인이 꺼져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힘들기는 ‘엘레베타걸’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어느 ‘엘레베타걸’은 “다리가 휘고 뼈가 녹는 것 같다”고 토로한다. ‘빠스걸’은 또 어떤가. 그 시절 한 버스 차장은 자신을 “빵의 절대적인 위력 밑에서 기계적 노예질을 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다. 당시 한 ‘빠스걸’이 쓴 수기 중 일부다.

“몇 번이고 표에 펀치를 찍는 내 손은 마비된 듯이 아프고 저리다. 오후가 되면 나는 피곤한 다리를 거두지 못한다. 다리에 맥이 하나도 없어지며 머리는 빙빙 돌아가며 눈은 멍하다. 코를 쏘아오는 가솔린 냄새가 전신의 신경을 찌른다. 이러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버리려고 ‘인단’을 하루에 한 갑씩 준비해야 한다. 그 중에도 한 달에 한번씩 생리적으로 XX이 있을 때는 우리들의 고통이야 더 말할 것이 없다. 그런 때 하루의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때는 땅을 기어가듯이 겨우 집에 돌아오곤 한다.”





### ‘걸’들의 애환

이러한 물리적 고통 외에도 그들을 힘들게 한 것은 근무 중 감독과 통제였다. 전화교환수는 “앞에는 손님의 야비한 욕설, 뒤에는 교환 감독의 꾸지람”이 두렵다고 이야기한다. ‘버스걸’ 역시 “동전을 떼어먹는 것처럼 물으며 형사 피고인을 취조하듯 하는” 감독을 원망했다. 수많은 손님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데파트걸’의 고충은 더 심했다. 그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점원 감독이었다. 잠시라도 다리가 저려 주저앉으면 호랑이 눈으로 감시하다가 이를 야단쳤다. 감독뿐만 아니라 각층마다 있는 투서함 역시 ‘데파트걸’들의 무시 못할 감시 장치였다고 전한다.

생활전선에 나온 여성들은 또한 각종 차별과 일상적인 성희롱에 시달려야 했다. ‘데파트걸’의 경우 전화로 부른 뒤 수작을 걸거나, 집으로 돌아갈 때 미행을 당하기도 했다. 서비스직 여성들을 아무 남성이나 성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옷을 입고 인형처럼 하루 종일 상점에 서 있는 ‘마네킹걸’도 있었고, 박람회 열리는 2개월 동안만 도우미로 일하던 ‘여간수’는 50전을 받고 ‘키스’를 팔다가 내쫓기기도 했다. 이러한 비참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녀들이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부분 생계 때문이었다. 당시 직업 여성들은 대개가 실질적인 가장이었다.

### 개발의 시대, 도시로 떠난 소녀들

열여섯의 나, 차창에 손바닥을 대고 플랫폼을 내다본다. 잘 있거라, 나의 고향. 나는 생을 낚으러 너를 떠난다. 신경숙, 소설<외딴방>중에서.

1960년대 산업화 이후,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화두는 개발과 성장이었다. 성장의 그늘에는 ‘공순이’와 ‘식모’로 상징되는 여성노동자들이 존재했다. 산업화 시기 많은 미혼 여성들이 ‘자신이 아니면 가족은 굶어 죽는다’는 의식으로 농촌을 떠났다. 이 시기 여성노동자들 역시 집안의 생계를 책임졌던 실질적 가장이었던 셈이다.

### 청계천 ‘다락방’의 여성노동자

그 시절 여성노동자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바로 청계천 일대 평화시장의 ‘다락방’이다. 다락방은 햇볕이 들지 않는 다락 위칸과 아래간에 미싱과 작업대를 갖다 놓고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숙여 일을 하던 공간이다. 당시 신문에 실렸던 다락방의 실태를 보면, 1.5m가 안 되는 천장아래 재봉틀을 두고 한 평에 평균 4명이 환기시설 하나 없이 하루 평균 14~15시간씩 일을 했다고 전한다. 1만3천여명이나 되는 13~17세의 소녀 견습공들의 월급은 겨우 3천원이었다.

특히 겨울에는 춥고 발이 너무 시려서 동상에 걸리는 여성노동자들이 많았다. 여름에는 20~30명이 모인 좁은 공간에서 땀범벅이 되어 일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기였다. 다락방에 돌아다니는 먼지의 크기는 눈송이만 했고, 하루 종일 일하면 콧구멍에는 새까만 코딱지가 엉겨 붙었다. 그래서 ‘밤늦게 버스에서 코딱지 파는 아가씨는 평화시장 여공’이라는 웃지 못할 말이 있을 정도였다. 먼지 구덩이 안에서 제대로 못 먹고 일만 하던 그녀들에겐 잔병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 시절 그녀들은 매일 ‘뇌신(당시 두통약의 이름) 몇 알에 박카스를 보약처럼 먹고 버텼다. 그래

서 ‘평화시장 아가씨들은 3년만 고생하면 고물이 된다’는 서글픈 농담 같은 이야기가 돌았다.

### ‘우먼 파워’의 등장

1980년대 이전까지는 기업들이 주로 비용측면에서 남녀간 임금 격차를 이용해 여성 노동력을 ‘저임금 여공’으로 활용했던 시절이라면, 80년대는 ‘서무 여사원’의 시대였다. 사무직에 주로 여상을 졸업한 여성을 배치해 경리와 문서 수발 등 비서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았고, 당시에는 전문성 보다는 말쑥한 외양과 씩씩한 태도를 중시했다. 이들은 보통 결혼과 함께 퇴사하는 게 관행이었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남성과 경쟁하며 공채를 통과한 대졸 여성들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각 기업들은 여성 인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 회사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마케팅과 홍보 등 특정 분야에서만 국한되던 여성 고위 관리직의 경우도 이제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은 더 이상 낯설거나 새롭지 않다. 근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며 여성들은 과거 일부 영역에서 남성의 보조적인 노동력으로 여겨져 왔지만, 지금은 사회 전 분야에서 당당하게 실력을 인정받으며 우먼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은 더 이상 낯설거나 새롭지 않다. 지금은 사회 전 분야에서 당당하게 실력을 인정받으며 우먼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 “당신이 읽는 순간 세상이 변합니다”

## 사회적 기업 <빅이슈코리아>

홈리스, 이른바 노숙인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부터 떠올릴까. 거리를 배회하고 지하철역에서 잠을 청하며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서는 사람... 2010년 7월, 서울에서는 스트리트페이퍼 빅이슈가 등장하면서 노숙인들이 대중에게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자신이 아닌 자활을 외치는 잡지, 빅이슈로 인해 노숙인들은 이제 구걸이 아니라 노동으로 거리를 누비고 있다.



KT trade union

18  
19

서울 지하철역 인근, 'THE BIG ISSUE'라고 쓰인 3천원 짜리 잡지를 손에 들고 큰소리를 외치며 판매에 열중하는 노숙인들. 잡지 한권을 사면 밝은 미소로 90도의 감사 인사를 건네는 이들을 본 적이 있는지.

빅이슈는 1991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소셜엔터테인먼트 매거진이다. 창업자 존 버드는 다섯 살 때부터 노숙을 해 왔던 경험이 있는 출판인이다. 자선기관은 있지만 노숙인을 위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은 없다고 생각한 그는 세계적인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인 '더 바디숍'의 히피출신 창업자 고든 로딕과 함께 빅이슈를 창간했다.

영국에서 빅이슈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홈리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성공적인 해결방안으로 꼽힌다. 매주 16만부가 발행되고, 지금까지 5,500명이 자립에 성공했다. 빅이슈는 현재 세계 10개국 14종이 독립적으로 발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열 번째, 일본과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다.

### 2010년 7월, <빅이슈코리아> 창간

빅이슈는 오직 노숙인 출신만이 잡지의 판매 권한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빅판(빅이슈 판매사원)'이라고 부른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의 지하철역 중심으로 50명의 빅판들이 활동하고 있고, 대전역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빅이슈코리아는 2010년 2월, IMF 이후 거리로 내몰린 실직 노숙인을 돕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거리의 천사들' 내 사업단으로 출발했습니다. 그해 영국 본사와 MOU를 체결하고 스트리트페이퍼 단체인 '세계 홈리스 자립지원 신문잡지협회(INSP)'에 가입했죠. 현재 15명의 직



원들이 매월 1일과 15일 2회에 걸쳐 호당 2만부를 발행해 1만 부 이상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이슈코리아' 진무두 대외협력국장도 빅이슈는 단지 잡지를 팔아 수익을 올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처음 8명으로 시작한 빅판은 현재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빅이슈는 소통이 희망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잡지에요. 노숙인들이 대중과 소통하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홈리스 자립지원의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잡지를 구매하는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빅판과 소통하면서 노숙인들을 사회적 인격체로 인식하게 되고, 빅판들은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어 자활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운영방식도 독특하다. 노숙인이 처음에 잡지 10부를 무료로 제공받아 길거리에서 판매하고, 이후 판매 수익금 3만원으로 다시 잡지를 1,400원에 공급받아 시민들에게 권당 3,000원에 판매함으로써 1,600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시스템이다. 빅판은 스스로 잡지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저축



하며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첫 2주의 임시 빅판 기간이 끝나고 정식 빅판이 되는 이들에 한해서는 고시원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월 20만원의 고시원 생활을 본인의 노력으로 6개월간 유지하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그렇게 현재 입주한 빅판만 1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빅판에게는 엄격한 행동수칙이 따른다. 배정받은 장소에서, 반드시 빅이슈 ID카드와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술이나 흡연도 허용되지 않고 하루 수익의 50%는 저축을 해야 한다.

**100% 재능기부로 만들어지는 소셜엔터테인먼트 매거진**

세계 공통으로 소셜엔터테인먼트 매거진의 콘셉트를 지향하는 빅이슈의 콘텐츠는 모두 빅이슈에 공감한 이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천편일률적인 유행보다는 주류와 비주류를 넘나드는 다양한 문화적 관심으로 파격과 재미를 추구해, 자연스럽게 참여와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콘텐츠 가운데 국제 뉴스 부문은 INSP 40개국 118개 회원사의 기사와 콘텐츠를 공유하고, 스페셜 기사는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서 그들의 노하우를 알려 대중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도가니대책위원회, 청년유니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홀트아동복지회 등이 지금까지 함께 했다.

유명연예인들도 기꺼이 표지모델로 나서고 있다. 영국에서는 '데이비드 베컴'이 표지 모델로,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인 '조앤 K. 롤링'이 무료로 잡지에 연재를 시작 하면서 대중들에게 크게 어필했다. 미국에서도 '버락 오바마', '레이디 가가', '조니 뎀' 등 유명인의 재능기부로 한층 유명해졌다.

한국어판 빅이슈는 배우 '최강희'와 '하정우'가 최초의 빅이슈 표지모델로 재능기부를 시작해 최근에는 '최정원', '아이유', '이효리' 등 점점 많은 유명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진무두 국장은 한국에서 빅이슈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약 2천여 명의 노숙인들이 쉼터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이들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분들 스스로 부끄럽다고 여겨 자립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과연 빅이슈 인가요? 주위에 조금만 관심을 돌리면 보이는 문제들. 커다란 정치적, 경제적 이슈가 아닌 이런 것이야말로 '빅이슈(주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에게 노숙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빅이슈입니다."



**세상과의 더 큰 소통을 위해**

하지만 이 모든 의미에도 불구하고 빅이슈가 어떻게 생존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나마 성장에 큰 도움이 됐던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지원도 올해 4월로 종료가 된다. 이후에는 '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빅판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가입한다 해도 15명까지만 인건비 지원이 가능해 한계가 많은 상황이다.

"저희들이 잡지를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자력생존이 가능해야 합니다. 광고도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많은 분들이 빅이슈를 읽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빅판들이 당당하게 판매하는 것 이상의 홍보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빅판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대중 앞에서 내가 노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의지가 없거나 빅이슈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면 불가능한 일이죠."

보다 넓은 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빅이슈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2012년 10월에는 멕시코시티에서 '홈리스월드컵'이 열린다. 72개국 홈리스대표팀이 모여 세계적인 축구스타들의 지지 속에 진행되는 이 대회에 빅이슈코리아는 한국대표팀으로 참여한다. '빅이슈 사진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소외계층의 시선으로 낮은 곳에서 바라본 정적이고 동적인 세상을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빅판들이 재능기부자들과 함께 사진과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게 된다. 여성노숙인을 위해서는 발레교실도 준비 중이다. 서울발레시어터와 함께 문화에 소외된 노숙인들을 문화 주도층으로 변화시키고자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또한 빅판들과 함께 거리에서 판매원 활동을 도와줄 자원봉사자 '빅돔'도 모집하고 있다. 회사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이나 중고생들도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단체로 참여할 때 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

이 모든 과정에 스폰서와 후원사가 절실한 실정이지만, 진무두 국장은 반드시 구걸이 아닌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로 협력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해서 향후에는 빅이슈 판매원들이 중심이 된 카페, 책방, 분식점 등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

노숙인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사회에는 노숙인의 가능성을, 시장에는 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는 빅이슈코리아. 대중이 그 가치를 알아주는 일. 진무두의 국장의 말처럼 "아마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듯"싶다.



[www.bigissue.kr](http://www.bigissue.kr)

정기구독&우편 주문 방법 : 빅이슈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신청



Just You Read,

# 그리스 재정 위기로 본 한국 경제의 현주소

## 그리스 재정 위기에서 우리나라가 얻어야 할 교훈은?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에 이어,  
 2010년 유럽이 연쇄적인 국가부도위기를 맞았다.  
 그리스 국가부채 탓이다.  
 찬란한 헬레니즘 문명을 꽃피우고  
 고대 민주주의의 발상지였던 아테네가 파업과  
 시위의 현장이 되었다.  
 총파업으로 아테네공항은 폐쇄되고  
 피레우스항구의 여객선도 발이 묶였다.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연설하던  
 신타그마 광장은 성난 시민들의 행렬로 채워졌다.  
 시위 도중 3명의 시민이 사망하자,  
 시위는 더욱 과열되었다.  
 철학과 이성이 지배하고 토론을 꽃피우던  
 그리스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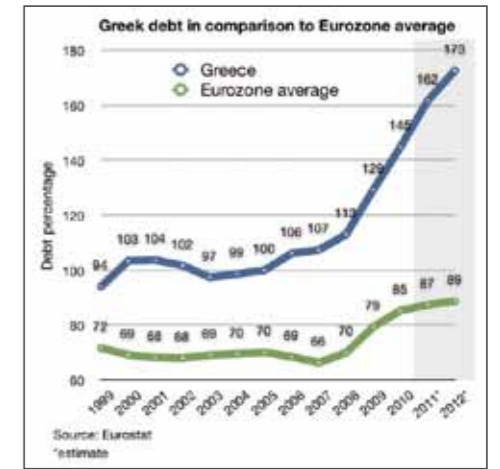
de·fault

○ 그리스 경제는 해운과 관광이 주력 산업이다. 하지만 2002년 유로 화폐통합이 이뤄지면서 산업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해운업은 동유럽 등 해외로 이전했고 관광산업도 위축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확장 정책을 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국제 수지까지 감소되었다. 공공부문 적자가 커지자 차관으로 이를 메웠다.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과 지나친 지출로 국공채는 늘어났다. 1993년 이미 국공채는 GDP의 100%를 넘어섰다. 그리스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계속 외채에 의존했다. 공공 부문의 외채는 1999년 320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총 부채의 1/4에 불과한 것이었다. 같은 시기 총 공채는 1190달러로 GDP의 105.5%에 육박했다. 높은 예산 적자와 부족한 인프라는 그리스 경제 성장률의 발목을 잡았다.

○ 2004년에는 아테네올림픽을 개최하며 무리하게 유럽의 지원을 받았다. 부채로 건설한 공공건물과 지하철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또 2004년 그리스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면제를 확대하며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조세부담률이 20% 수준으로 OECD 평균 26%보다 낮았다. 하지만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 고소득 자영업자는 소득과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 부패와 탈세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 한편 그리스 양대 정당인 파속당과 신민주주의당이 과잉복지 정책을 남발했다. 의료복지와 연금에 지나친 예산이 사용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연금 등 복지지출 대부분을 구세대에 지급한 데다 일부 특권층이 연금 혜택을 독차지한 데서 비롯됐다. 일부 직종에서 '낸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불공정한 관행은 고쳐지지 않았다.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국민들의 근로자사회보험기금(IKA)의 경우, 자신이 낸 금액의 1.1배를 연금으로 받는 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공부문은 연금기여액의 2배~5배를 연금으로 돌려받았다.

○ 실제 그리스의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GDP의 21.3%로, OECD 평균(19.3%)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스의 방만한 연금운영은 비판대상이지만, 실제로 국가재정에서 연금을 포함한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높지 않다. 그리스는 가족주의가 강해 국가복지가 발달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유럽 내에서 복지 수준이 뒤떨어진 나라에 속한다. 아테네대학 예오르요스 파굴라토스 교수는 "유로존 내에서 그리스의 복지지출은 평균 수준이었지만 광범위한 탈세 때



1999년부터 2010년 유로존 평균과 그리스 부채비율

문에 안정적인 조세 기반을 갖지 못한 것이 부담이 됐다"며 "이는 복지뿐 아니라 그리스 공공부문 적자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그리스 경제위기는 과잉복지가 아니라, 지나친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과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 단일통화 체제 등에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뿌리 깊은 부정부패, 사회 전반에 만연한 조세 도피, 취약한 제조업 경쟁력 등이 그리스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전 총리는 "부정부패와 탈세가 그동안 공공부문이 살아온 방식"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리스의 부정부패가 어떻게 그리스 경제위기의 원인이 됐는지를 사례를 들어 소개하기도 했다.

○ 그리스 정부는 최근 자산을 매각하고 긴축정책을 단행했다. 공무원을 감원하고 급여를 대폭 삭감했다. 시위에 나선 공무원노조나 시위를 막는 경찰이나 모두 급여가 삭감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청년실업은 43%나 된다. 빈곤율은 20%를 넘는다. 결국 무능한 정부의 경제 실정과 부패로 평범한 시민들의 생활난만 가중되었다.

○ 우리 정부도 법인세 인하, 양도소득세 인하 등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수세계박람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앞다퉀 유치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기업과 고소득자의 탈세를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 세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이처럼 악화 일로를 걷다보면 우리도 그리스와 같은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리스 위기를 강 건너 불구경 할 수 없는 이유다.

# “세계와 소통하는 해저관문을 지킵니다!”

부산국제센터지부 국제해저인프라팀 김연태 조합원

세계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 수십만km에 이르는 해저케이블이 대양을 건너 거미줄처럼 뻗어나가 세계 각국을 잇는다. 만일 해저케이블이 끊어진다면? 그것은 세계와의 단절, 국제통신으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하는 커다란 사건이 될 것이다. 해저케이블의 파수꾼인 부산국제센터지부 김연태 조합원이 오늘도 바다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이다.



KT trade union

24  
25

## 국제통신의 핵심 인프라를 담당

꼬박 5시간을 달려 도착한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은 한가로웠다. 몇몇 여행객들이 한적한 해변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고, 이를 반기는 갈매기 떼만이 끼룩끼룩 울어대곤 했다. 해수욕장에서 레스토랑과 카페 사이로 난 골목을 따라 올라가니 두터운 담으로 둘러쳐진 건물이 유독 눈에 띈다. 군사시설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국제통신의 핵심 인프라인 해저케이블의 운용·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국제센터지부이다.

부산국제센터지부 국제해저인프라팀 김연태 조합원(48)을 만난 것은 2층의 ‘해저케이블 관제실’이다. 레이더, CCTV, VHF 등 온갖 첨단 장비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그는 바다를 향해 측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언뜻 해군의 상황실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이다. “부산 태종대 봉래산과 거제 해금강에 각각 1대씩 레이더가 있어요. KT에서 레이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저희밖에 없죠. CCTV도 부산에 10대, 거제도에 6대가 있고, 감시선박은 부산에 2척 그리고 거제와 제주에 각각 1척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박에 의한 해저케이블의 파손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해저케이블은 수십만km에 이른다. 최대 해저 8km의 깊이로 심어진 수많은 광케이블은 5대양을 가로질러 100여개 국가를 연결하고, 다시 대륙의 육상케이블과 이어져 세계의 모든 국가와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부산국제센터지부에서 운용하는 광케이블은 총 11개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6개, 중계소인 거제도에서 5개가 뻗어나간다. 우리나라에서 세계로 나가는 데이터의 99%가 이곳을 통한다고 하니 부산국제센터지부의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은 그 범위와 길이에서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대만 5개국을 연결하는 CUCN(China-US Cable Network)을 비롯해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을 연결하는 APCN2(Asia Pacific Cable Network-2), 아시아에서 중동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진 FEA(FLAG Europe Asia) 등이 그것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시작해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서유럽을 연결하는 SMW3(South East Asia Middle East Western Europe-3)의 길이는 3만 9,000km에 달해요. 지구상에서 가장 긴 해저케이블이죠.”



부산국제센터지부 국제해저인프라팀 김연태 조합원





해저케이블이 국제통신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것은 여러 가지 장점 때문이다. “위성을 통한 무선방식은 기상에 영향을 받고, 시간적 지연이 있으며, 보안성도 떨어집니다. 반면 해저케이블은 이러한 위성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죠. 현재 483만5,220개에 달하는 전체 국제회선 가운데 저희 KT가 79%를 점유하고 있어요. 부산국제센터에 문제가 생긴다면 해외전화는 물론 국제무역, 국제금융거래 등에 심각한 장애를 불러오게 되는 거지요.”

**활발한 홍보로 7년간 무사고 기록**

해저케이블의 고장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로작업에 의해 일어난다고 한다. 쌍끌이와 외끌이 어선의 경우 그물을 바닥에 가라앉히기 위해 사용하는 쇠로 된 추가 해저케이블에 걸려 피복을 파손시킬 수 있으며, 안강망 어선은 그물 고정용 닻이 케이블에 걸릴 수 있다. 통발 조업 때 어선들이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부표를 띄우는데, 이게 사라지면 바닥을 끌며 통발을 찾기도 한다. 이때 해저케이블이 걸려 파손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외에도 대형 상선의 정박용 닻에도 케이블이 손상

될 수 있단다. “해저케이블은 약 60t의 장력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며, 건설 당시 매설작업도 합니다. 하지만 선박들이 무리하게 끌어당겨 피복이 벗겨지고, 조류로 인해 문혔던 케이블이 드러나기도 해요. 이 때문에 레이더, CCTV 등을 통해 케이블 루트 상에 있는 선박들을 모니터링하고 계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특히 해저케이블은 A/S보다는 예방, 즉 B/S가 더욱 중요합니다. 해저케이블이 한 번 고장 나면 그 수리비용이 천문학적이거든요. 최소 5억원, 많게는 30억원까지 비용이 소요되니 예방이 최선책입니다.” 이 때문에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수산 관계기관과의 유대강화 등도 부산국제센터지부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조합원들이 직접 항구로 나가 어민들을 만나기도 하고, 수협이나 어업무선국, 선장협회 등 단체들을 찾아가 간담회를 열기도 한다. “바닷가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 것 같지만 대부분의 어민들은 꽤 순박해요. 요즘은 국제통신에 대한 이해가 높아서 협조도 잘 해주시고요. 해저케이블이 국가적인 시설임을 많이 인지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조업이 좋지 않을 때는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분들이야 생업이 우선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지난 1998년부터는 해저케이블 경보장치를 선박에 무상 설치해주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매년 200~300대씩 제공했으니 벌써 수천 대의 해저케이블 경보장치가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는 셈이다. 한 대에 수십만원에 달하지만 해저케이블의 막대한 수리비용을 생각하면 꽤나 저렴한 예방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선박이 해저케이블 근처에 접근하면 경보음만 울리던 장치를 개선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육상에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기기에 케이블 루트를 입력해 해저케이블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산국제센터지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2005년 이후 ‘7년 연속 무고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1년 평균 6건씩 고장이 발생했다고 하니 굉장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외국에서도 우수 사례로 삼고 벤치마킹할 정도다. 김 조합원의 보람도 이것과 맞닿아 있다. “7년째 무고장이라는 것은 선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20년간의 부단한 홍보효과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저케이블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사명이자 꿈입니다!”



**부산국제센터지부**

부산국제센터는 국제통신의 핵심 인프라인 해저케이블의 운용·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곳이다. 해저케이블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 국제 전송 및 교환 시설 운용 등도 주요 업무이다. 1980년 11월 부산해저통신 중계국으로 개국했으며, 현재 국제해저운용팀, 부산국제운용팀, 국제해저인프라팀, 거제해저중계소 4개 팀으로 이뤄져 있다. 조합원 수는 37명이다.



# KT · 삼성전자 스마트TV 분쟁

## 통신 노동자의 정당한 땀의 대가를 요구한다

2월 9일 KT는 다수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왜곡 방지 등을 위해 인터넷망 무단사용에 대한 스마트TV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KT는 삼성전자의 애플리케이션 장터 '삼성엡스'를 스마트TV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했고, 삼성전자는 일방적 제한조치가 부당하며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검토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9일 오전 9시부터 이어져온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 중단 사태는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합의안을 도출, 5일 만인 14일 오후 5시30분부터 접속을 재개하고, 삼성전자도 인터넷 접속 제한행위 중지 관련 가처분신청을 취하였다. 양사가 도출한 합의안은 국내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사업자 간 자율협약에 스마트TV 세부분과를 구성해 운영하며, 스마

트TV산업정보통신망 투자가치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간 협의와 별도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용 분담 등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 스마트TV 등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KT의 이번 스마트TV 접속 제한 조치에 대해 방송통신위



원회와 스마트TV제조사는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망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를 망 중립성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소수 재벌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네트워크 서비스의 가치중립을 퇴색시키는 것일 뿐, 네트워크 서비스의 근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스마트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대용량 트래픽의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스마트TV 제조사는 인터넷 망을 무단 사용함과 동시에 개통, A/S책임까지 통신사에 전가하고 있다. 이에, KT는 스마트TV활성화 및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 IT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통신사와 제조사간의 상호협력을 제안하면서 협상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KT가 구축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적정한 대가 지불 없이 무단 사용하면서 협상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이번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 제한 조치의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망 과부하 때문이다.

IPTV는 서버에서 여러 명의 사용자에게 동시에 트래픽을 보내는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아져도 다른 사용자의 통신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스마트TV는 PC와는 달리 HD, 3D급 대용량 고화질 트래픽을 장시간 송출시키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단말로, 스마트TV 동영상은 평상시 IPTV 대비 5~15배, 실시간 방송 중계 시 수 백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가입자망 무단 사용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확대된다면 머지않아 통신망 블랙아웃(Blackout)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처럼 대용량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네트워크를 독점할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대다수 일반 인터넷 이용자다. 인터넷 속도는 최대 265배나 느려지는데, 이는 단순한 인터넷 웹서핑도 어려운 수준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KT의 실험에 따르면 스마트TV로 고화질 동영상을 구동하는 순간, 같은 망에 연결된 노트북의 사용 가능 대역폭이 20Mbps에서 1Mbps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전반적인 KT의 백본망에 위급 상황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마트TV 제조사가 무단으로 KT통신망을 이용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망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삼성전자의 스마트TV사업은 단순한 제품 제조업이

스마트TV는 PC와는 달리 HD, 3D급 대용량 고화질 트래픽을 장시간 송출시켜 IPTV대비, 실시간 방송중계 대비수백배 이상 트래픽 유발



라고 할 수 없다.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서비스에는 광고 판매나 앱 스토어 입점료 등의 수익 모델이 이미 작동 중이며, 이는 KT와 같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인프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네트워크는 마음껏 사용하는 공공재가 아니라, 명백한 사유재산이다. 망 이용대가에 대한 협의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이 투자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통신망 업그레이드 등 재투자가 이뤄지는 것이다.

또한 이는 KT 1만여 네트워크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에 적절한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노력을 스마트TV제조사들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세계적인 스마트 미디어 환경과 네트워크 노동자들의 역량 배가를 위해서라도 스마트TV제조사들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망 업체의 재산권에 대한 공정한 인식을 바탕으로 통신 정책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KT노동자들은 정체된 IT산업의 재도약을 일구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산재신청 체크리스트!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관련 잘못된 상식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는 일을 말한다.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산재보험 신청 시 오해하기 쉬운 잘못된 상식 몇 가지를 뽑았다.

문의 : 김배정 산업안전국장(031-727-2824)

### 집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 인정이 어렵다?

◎ 과로성 재해의 경우, 재해 발생 장소가 사업장 이외인 경우가 많다. 출퇴근 도중이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과로성 재해는 사업장 내에서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하면 업무 수행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드시 업무 수행성만 있다고 해서 당연히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촉발요인이 중요하므로, 업무 기인성 보다는 업무 수행성이 더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한다. 하지만 뇌경색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질병은 업무 수행성 보다 만성적 과로 요인 같은 업무 기인성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된다. 즉 과로성 재해 사건에서는 비록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재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평소 업무상 과로요인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

◎ 과로성 질병의 경우, 가능하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 사업장에서의 안전 사고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회사 또는 병원에서 신청 접수를 하더라도 재해발생 당시의 사실관계만 증명하면 산재로 승인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 경우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안전사고라 해도 사업장 외의 재해 또는 행사 중의 재해 등과 같이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률적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나 중대 재해로 산재보상 외에 사업주와의 손해배상 문제가 남은 경우 등에는 가능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산재보상에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과로성 재해와 같은 업무상 질병은 실제 신청 대비 산재 승인율이 20%에 못 미친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이 업무상 질병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등 해당분야의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 재해당시 특별한 과로가 없기 때문에 산재인정이 어렵다?

◎ 과로성 질병 사건의 핵심은 어느 정도의 과로가 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느냐 하는 것이다. 즉 과로성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인정 기준이 있고, 과로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적·의학적 방법이 있다면 과로성 질병에 대한 법적 분쟁이나 다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근로자의 재해 당시 건강상태, 피해자의 기초질병의 치유경과, 위험요인 및 가족력, 피해자가 근무한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업무 과부하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간의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재해 당시에는 평소와 달리 특별한 과로요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작업환경 및 작업강도, 평소 작업시간 등 상시적으로 만성적 과로가 있는 상태에서 근무해 왔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재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산재 승인이 어렵다?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재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질병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다. 해당기간이 초과하면 산재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산재신청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다. 재해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그 사이 재해와 관련한 입증자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로성 재해 사건의 경우 단순한 안전사고와는 달리 피해자 측에서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의학적·법률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련사실에 대한 조사 및 입증자료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입증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산재신청 접수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로성 질병에 의한 재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모든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공단에 접수하기까지 최소 한 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 눈부신 자태에 취하고 황홀한 향기에 취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3월 꽃 나들이 명소

우수와 경칩이 지났다. 대동강물이 풀리고 겨울잠 자던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절기다. 때마침 내린 봄비가 얼었던 대지를 축축이 적시며 서둘러 봄을 재촉한다. 남쪽으로부터 봄기운이 밀려오고 초목의 싹들이 돌아날 준비를 하는 이때, 봄을 마중하러 남도로 떠나보자.



## 봄 향기에 취하니 시 한 수가 절로. 강진

봄 바다를 보고 싶다면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강진이 제격이다. 푸른 보리밭과 바다, 생강나무와 동백나무의 화사함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곳이다.

23번 국도를 따라 강진 칠량, 대구, 마량해안이 이어지는 강진만 바다를 가노라면 바다 저편으로 죽도, 가우도, 비래도, 까막섬 등이 눈에 들어온다. 둥글둥글한 섬들이 보이는 남도 특유의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마량포구에서 배를 타고 나가면 고금도나 약산도로 다도해 섬기행도 가능하다.

강진읍 남쪽에는 만덕산의 산등성을 사이에 두고 다산초당과 백련사가 이웃해 있다. 동백나무 군락과 강진만 풍경이 정원처럼 펼쳐져 있는 백련사는 정약용이 유배 시절 학문적 소양을 쌓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왕복 2시간가량 소요되는 만덕산 정상까지 올라보는 것도 좋다. 이곳 역시 강진군과 강진만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조망이 훌륭하다.

강진은 김영랑 시인의 고향으로도 유명하다. 문향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그의 생가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다. 옛 모습을 복원한 초가와 고풍스러운 정원이 운치를 더한다. 여행의 동선은 강진을 기점으로 잡으면 된다. 수도권에서 출발하면 광주 또는 목포를 거쳐 2번 국도를 타고 강진에 다다를 수 있다.

문의 | 강진군청 [www.gangjin.go.kr](http://www.gangjin.go.kr)

## 봄꽃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화, 거제 해안도로

거제도에서는 동백꽃이 서서히 물러서는 가운데, 진달래와 유채꽃이 3월 중순부터 제 빛깔을 뽐낸다. 거제도는 형형색색의 꽃물결이 유난히 아름답다. 망망한 바다 위로 보이는 수많은 섬들, 그리고 야트막한 산길에서 내려다보이는 포구 마을의 장관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특히 거제도 남단 남부면 다포리의 남쪽 해안도로는 바다 뒤로 솟은 다도해의 섬들을 조망하기에 가장 좋다. 거제대교를 건너 우회전해서 1018번 지방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향하면 된다. 해안을 따라 달리다가 남부면에 들어서서 탐포마을, 명사해수욕장을 차례로 지나면 남해안 제일의 해안 드라이브 코스라는 홍포-여차 해안도로가 시작된다. 이곳은 미역 산지이며 불락과 감성돔의 낚시 포인트로도 유명하다. 특히 섬들이 모인 풍광이 수려해 유람선의 주요 관람코스이자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촬영 포인트이기도 하다.

문의 | 거제시청 문화관광 [tour.geoje.go.kr](http://tour.geoje.go.kr)

## 매화 향기 퍼지는 섬진마을

3월, 이즈음 섬진강변에는 매화가 지천이다. 섬진강변에는 군데군데 매화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섬진마을은 매화마을로 유명하다. 섬진마을에는 매실 명인으로 잘 알려진 홍쌍리씨의 청매실농원이 있다. 여기가 바로 섬진강 매화 향기의 진원지인 셈이다. 그의 시아버지인 김오천씨에 이어 대를 이어 일궈온 매화나무 밭이 산을 이뤘다. 지금은 3대째 매실명가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섬진마을에서 강기슭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새하얀 매화로 뒤덮인 마을 전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문의 | 광양시청 [www.gwangyang.go.kr](http://www.gwangyang.go.kr)/청매실농원 [www.maesil.co.kr](http://www.maesil.co.kr)

## 겨우내 꽃을 피우는 동백 군락지, 장흥

서울의 광화문을 기준으로 한반도의 북쪽 끝에 중강진이 있고 동쪽 끝에 정동진이 있다면, 남쪽 끝 정남진이 바로 장흥이다. 장흥은 여러 설화가 깃든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는 천관산, 사자산, 부용산, 제암산 등 명산이 가득하다.

이 중 천관산은 굽이굽이가 명소다. 조선 후기 실학자 위백규 선생의 제각이 있는 장천재 계곡과 이 계곡을 따라 자연스레 형성된 동백 군락지가 겨우내 꽃을 피우고 있다. 장천재 계곡과 동백군락지가 자연의 조화라면 천관산 탐산사의 문학공원은 사람의 조화 또한 이에 못지않음을 보여 준다. 탐산사에는 국내 저명작가 50여 명으로부터 친필 원고를 받아 캡슐에 넣어 쌓은 문탑 외에도 가훈탑, 월드캡탑 등 갖가지 의미를 담은 탑 600여 개가 독특한 모양으로 쌓여 있다. 산에서 내려와 종려나무 길을 거쳐 동백나무 길을 따라 바다로 가면 머드팩과 해수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다지 해변과 영화 〈죽제〉의 촬영 장소로 유명한 남포마을의 소등섬을 볼 수 있다.

문의 | 장흥군청 장흥여행 [travel.jangheung.go.kr](http://travel.jangheung.go.kr)



#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마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남편으로 아버지로, 혹은 ‘나’라는 사람으로  
내일의 꿈을 두드리자.”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마흔들, 그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는 고난의 강을 건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마흔들이 겪는 애환과 아픔, 슬픔과 격동, 회한과 아쉬움을 15개의 스토리와 메시지로 구성한 책이다. 오늘의 40대는 이미 장년의 시기에 접어든 한국경제의 현실과 만나면서, 저축을 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언제 직장에서 물러날지 알 수 없으며, 치솟는 물가, 감당하기 어려운 자녀교육비, 각종 스트레스와 질병, 노예의 꿈(하우스푸어)으로 바뀌어버린 내집 마련의 꿈... 그 밖에 빨라진 은퇴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부양의 의무만 남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

책은 이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40대의 아파도 아파할 수 없는 가슴 절절한 사연들을, 자기고백적인 솔직한 문체로 담담히 써내려간다.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된 15개의 이야기는 단편소설을 읽는 듯한 강한 인상과 진한 여운을 주며, 메시지는 한편의 수필처럼 가볍게 읽히면서도 깊은 의미를 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시대 마흔들이 겪고 있는 슬픈 자화상들을 몇 개의 큰 주제로 나누어 솔직하고도 담백한 어조로 풀어냈다. 그러면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 KTTU QUIZ

“KT노동조합 11대 집행부의  
기조는 ‘변화하고 ○○하는 강  
한 노동조합 건설’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정답 보내주실 곳 : chandny21@paran.com

### ANSWER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주실때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 (주)다운플랜 업무개선 및 서비스 이용 안내

### (주)다운플랜의 경조 서비스 추가

(주)다운플랜의 구조로 웨딩 서비스도 사용 가능합니다.

- 언제부터 : 2012년 4월 16일 부터
- 해당지역 : 전국
- 서비스 내용(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등재 예정)
  - 이벤트예식기획, 웨딩플랜 제공
  - 리허설 : 신랑/신부의상(최신상품 자유선택 가능), 헤어 및 메이크업, 앨범 및 액자
  - 본식 : 신랑/신부의상, 헤어 및 메이크업, 앨범 및 액자, 부케
  - 웨딩카 지원 : 벤츠, BMW, 에쿠스 등 선택
- 문의 : 다운플랜 콜센터(1577-1588)

### (주)다운플랜의 근조기, 근조화환 배송 프로세스 개선

- 프로세스 개선 주요 사항
  - 장례 서비스 이용 및 장제용품, 근조기, 근조화환 신청은 다운플랜 콜센터로 일원화(1577-1555)
  - 장제용품 배송 기간 단축 및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전국 9개 거점에서 60여개 거점으로 확대

### (주)다운플랜 서비스 이용 안내

(주)다운플랜은 터무니 없는 장례비용을 근절하고 조합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직접 책임 운영하는 상조회사입니다.

- 고품격의 친절한 장례서비스
  -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고인 이동 시 앰블런스 사용료 관내는 무료, 관외는 절감됩니다.
  - (주)다운플랜과 체결된 장례식장 이용 시 각종 비용이 할인됩니다.
  - 전문 장례지도사의 컨설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비용 절감 및 추가 비용 근절
  - 손님 인원에 따라 장례도우미가 통제 및 적절한 양의 음식을 제공하므로 음식 비용과 장례식장에서 요구하는 제례 비용 등이 절감됩니다.
- 일반 상조회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가 요금 근절
  - 고인을 영할 때 발생하는 노잣돈, 발인할 때 발생하는 버스, 리무진(왕복200km 제한)의 추가요금, 장례도우미의 목욕비 등 기타 추가 요금 요구를 금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고속도로 통행료는 상주 부담)
- 참고사항
  - 해당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가 시설이용료 할인 등을 이용하여 자체 상조를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추가 요금 요구시 패널티 제도가 있으니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할 때는  
다운플랜 담당(홍정성 T.010-9559-2778)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